

전직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경인일보
남국성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의 가족 명의 회사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은 효연산업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에는 수원 도이치오토월드 내 편의점이 있었다. 수원 도이치오토월드는 해당 공무원이 맡았던 사업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우기자(2021.3.23)

지역 신문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지역 신문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난 1년 5개월 동안 늘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질문이다. 현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사, 사안을 냉정하고 촌촌하게 해석하는 기사, 아무도 몰랐던 정보를 폭로하는 기사, ‘기자가 써야 하는 기사’에는 답이 될

수 있었지만 ‘지역 신문 기자가 써야 하는 기사’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했다. 평생을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 때 예고도 없이 해답의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사를 물 먹었다. 3주 동안 기획취재 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후 정치부로 복귀

‘도이치’ 유치 담당자의 형제, 편의점 대표 2명과 이름 같아

〈수원 고색동〉

원삼면 반도체 단지 전·현 공무원·주민대표 투기 의혹·일파만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삼면 조성이 공여되다가 전 인근 부지를 매입한 전·현 공무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원은 박민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는 본인이 유치를 주도했던 다른 사업과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또 지난 7월로 인접부지를 매입한 전직 용인시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A씨 가족이 하는 주민들의 대표 역할을 맡아 부상 등에 관한 문제가 협의를 주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부지 매입한 A씨. 또 다른 사업과도 관련 의혹. 2월 A씨를 고발한 경기도가 그

재직기간 투기 업무 전만 조사

중공후 편의점 운영허가 마쳐

가족회사 정본은 “관계가 없다”

변장 파직후 대책위원장 활동

파수용인 형제·보상 관련 민원

직 기간 담당했던 투기 유치 업무 전만을

조사기로 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A씨 가족이

하는 주민들의 대표 역할을 맡아 부상 등에

대표로 있는 회사 호연산업주식회사는 그

가 유치 업무를 맡았던 수원 도이치오

월드 내에 지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호연산업의 투기 부동산을 확인해본 결

과 2019년 호연산업은 수원시 판교구 고

색동 도이치오토월드에 수원지점을 설치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원삼면 일원 442만㎡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로 발표

했다. 열을 뒤 경인일보에는 2년 전부터 클러스

터 부지 관계가 선명한 도면이 유출돼 투기세

력 활용과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DB

했다. 도이치오토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자동차 복합단지다. 지난 2016년 착공

해 지난해 준공됐다. A씨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청에

서 기점 부지 유치 업무를 담당했다. 수원

도이치오토월드는 사업도 A씨의 손을 거친

사업이다. 착공 당시 도가 배제한 보도자

료에도 담당자로 A씨가 명사된 있다.

2월 호연산업 수원지점으로 등록된

도이치오토월드는 내 사무실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해당 편의점은 A씨의 형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

난해 2월 도이치오토월드가 준공한 직후

그해 4월 편의점이 운영 허가를 마쳤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A씨에게도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해 취재한

호연산업 수원지점과 해당 편의점에 대해

문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체 클러스터 연합 대책위원장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에

정부지와 인접한 병지 매입과 관련된 전

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

터를 부지 입찰으로 둘러싼 상황다. 해당

편의점의 대표도 두 명인데, 모두 A씨의

형제와 같은 인물이다. 두 대표는 지파1

층에 있는 이 편의점 외에 지상 1층에도

다른 편의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

되는 이름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해당 편의점 대표에게 호연산업과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문기 위해 전화



지난 3월24일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의 본점인 용인시 보정동의 한 건물 702호를 찾았지만 5곳으로 쪼개져 있었고 모두 다른 기업들이 입점해있었다.

했다. “23일 A씨를 고발한 경기도가 그가 재직 기간 담당했던 투자 유치 업무 전반을 조사키로 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A씨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호연산업 주식회사는 그가 유치 업무를 맡았던 수원 도이치오토월드 내에 지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로 추정되는 이들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 팩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면 기사를 작성할 수 없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사라면

그 잘못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기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하루는 중앙지에 기사를 물 먹으며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중앙지에 물을 먹이며 끝을 냈다. 단독 기사를 내보냈던 중앙지는 경인일보 보도가 나온 다음 날에서야 호연산업 주식회사와 도이치오토월드 내 CU편의점 간 관계를 조명한 기사를 내보냈다. 도이치오토월드가 A씨가 담당했던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낸 사수 선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기사였다. 다른 기자들에겐 없는 선배만의 렌즈, 수년 간 한 자리를 지켰던 지역 기자

지난 3월26일 A씨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B씨의 주소지가 호연산업 주식회사가 구매했다고 알려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호연산업 주식회사 땅을 구매한 것보다 한달 앞선 시점으로 취재를 통해 A씨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경인일보

[단독]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가족도 개발예정 인근 땅 구매



26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필지에는 주변 논밭보다 터를 4~5m가량 북돋아 용벽을 세웠고 이 터 위에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조립식 건물 주변엔 측백나무 100여그루가 심겨 있었고 필지 경계에는 펜스가 둘러져있었다. 용벽 너머에는 가지치기가 된 나무 10여그루가 있었다. 토지 수용 보상가액을 높이기 위해 성토를 하면서 조립식 건물과 나무, 펜스 등 지장물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원삼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와 높이를 맞추면서 매립한 토목 자재와 나무, 펜스도 지장물로 토지수용 보상금액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6일 찾은 해당 필지에는 주변 논밭보다 터를 4~5m가량 북돋아 용벽을 세웠고 이 터 위에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조립식 건물 주변엔 측백나무 100여그루가 심겨 있었고 필지 경계에는 펜스가 둘러져있었다. 용벽 너머에는 가지치기가 된 나무 10여그루가 있었다. 토지 수용 보상가액을 높이기 위해 성토를 하면서 조립식 건물과 나무, 펜스 등 지장물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원삼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와 높이를 맞추면서 매립한 토목 자재와 나무, 펜스도 지장물로 토지수용 보상금액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 눈이었다. 사수 선배만이 아니다. 사회부 선배들은 이날 ‘전현 공무원·주민 대표 아들까지 ‘반도체 부지’ 줄줄이 샀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용인시 현직 공무원, 해당 지역의 전직 주민대표 가족의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였다. 경인일보는 이미 2년 전인 지난 2019년 3월 용인시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투기 세력이 이를 활용한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잊었지만 선배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이틀 연속 A씨와 관

련된 기사들을 출고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의 본점인 용인시 보정동의 한 건물 702호를 찾았다. 702호는 5곳으로 쪼개져있었다. 5곳 모두 다른 기업들이 입점해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호연산업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입점한 회사 문을 두드리고 건물 관계자를 찾아 수소문했다. 인근 부동산까지 찾아갔지만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다”는 말만 돌아왔다. 해당 건물 7층 사무실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냈다. 그러다 701호에 본점을 둔 회사 ‘팻밀’에서 A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팻밀의 대표이사인 B씨와 사내이사로 등재된 A씨의 거주지는 같았다. 도이치오토월드에서 CU편의점을 운

영하고 있던 A씨의 가족 역시 핏말의 감사로 등재돼있었다. 모두 가족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었다.

수십 장의 등기부등본을 떼고, 서류상에 적힌 주소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A씨와 A씨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유령회사’는 모두 세 곳이었는데 그 중 한 곳은 도내 산업단지 개발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 과정에서 담당자의 이름에 A씨가 들어간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개였다. 그는 ‘경기도 믿고 투자하면 도민이 행복하게 웃는다’ (2017년 12월11일자 보도자료)고 했고 그 과정에서 ‘쓰러져가던 대형개발사업 재개 이끌어내’ (2019년 3월21일자 보도자료)기도 했다. 경기도청을 퇴직한 이후 그는 도내 시·군에서 투자 유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도내 개발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정보는 그대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용됐다.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종지부를 찍은 건 그 다음 기사였다. 지난 3월26일 금요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찰나, 익숙한 지명이 눈에 들어왔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A씨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핏말의 대표이사 B씨의 주소지가 호연산업 주식회사가 구매

했다고 알려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지였다. 현장을 즉시 방문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사회부 선배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다. 주소지에는 자갈이 깔린 조립식 건물이 있었다. 건물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선배는 수종은 물론 나무가 심긴 간격 등 도드라지는 지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 건물 부지를 구매한 시점은 지난 2018년 9월. 호연산업 주식회사가 땅을 구매한 것보다 한 달 앞선 시기였다.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을까. 선배는 곧장 원삼면 일대 개발 사업을 살살이 알고 있는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선배는 2년 전 투기 의혹을 보도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선배가 말했다. “기사 작성하면 돼.” 본인이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곳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가 이번엔 가족 명의로 인근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6시44분 [단독] ‘투기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가족도 개발예정 인근 땅 구매 ‘기사가 출고됐다. 40분 뒤 경기도 보도자료가 나왔다.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다른 언론들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경인일보의 한 발 앞선 자체 단독 기사로 도민들에게 A씨 관련 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B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 김금보 기자(2021.3.28)

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을 전달했다.

지난 3월31일 다시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 본점을 찾았다. A씨가 방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였다. 공실이었던 사무실 한 곳에 ‘호연산업’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건물 관리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차례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은 한번도 없었다. 경기도로부터 고발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지난 4월16일 구속됐다. A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지

지 않는 사실들이 많다. 왜 2017년에 호연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2년차인 지역 신문 기자에게 남겨진 일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었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 선배들이 그랬듯 다른 의혹이 발견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 기사를 써야 한다. A씨와 관련된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